



#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소형근 | 남서울대

## 1. 서론

‘이방인(異邦人)’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국어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며, ‘이방인’이 ‘자국민’에 대한 상대어로 단순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영어 표현들(alien, stranger, foreigner, gentile)을 보면 이방인의 의미가 좀 더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을 만들고, ‘이방인’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들(גֵּר, תושב, זָר, נָכְרִי/נְכָרָה)의 쓰임을 연구하면 ‘이방인’의 개념이 다양성을 넘어 복잡함을 알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왕조 이전 시대는 ‘이방인’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구약 성서에서 왕조 이전 시대 이방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나 왕조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들로 인해 사회적 문

\* 이 논문은 2012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Kaiser, 1992), 215.

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구약 성서의 언약 법전, 신명기 법전, 제사 법전에서 관련법들을 상세하게 다루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이방인 신분을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이방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이방인 관련법들을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 유다 사람들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 관대했지만, 반대로 유다의 정체성을 보수(保守)하기 위해 이방인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했던 상황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 문헌에 해당하는 역대기 역사서<sup>2)</sup>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에서 이해하는 이방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방인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들의 용법과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입장을 살필 것이다.

## 2. 히브리어 이방인의 용례

구약 성서에는 ‘이방인’과 관련된 표현들(‘이방인’, ‘나그네’, ‘객’, ‘거류하는 자’, ‘거류민’, ‘동거인’ 등)이 26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피터슨(J. Pedersen)에 의하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방인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자들을 일컫는다고 말한다.<sup>3)</sup> 그러나 구약 성서의 이방인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동일 단어의 의미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의 이방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어들로 ‘게르’ (גֵּר), ‘토샤브’ (תּוֹשָׁבִית), ‘자르’ (זָר), ‘노크리’ (נוֹכְרִי) 혹은 ‘네카르’ (נֶכָר)<sup>4)</sup>가 있는데 이 용어들은 각기 그 쓰임에 있

2) 역대기 역사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은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피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쥘즈(Zunz)와 무버스(Movers) 이래 통용되고 있는 ‘역대기 역사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이방인에 대한 연구로 제한할 것이다.

3) J. Pedersen, *Israel: Its Life and Cultur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39-46.

4) 이태훈은 그의 논문에서 구약 성서의 이방인을 두 종류라고 말한다. 즉, ‘게르’와 ‘노크리’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이방인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게르’와 ‘노크리’ 외에도 ‘토샤브’와 ‘자르’가 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한 구약 성서의 용례가 다르다. 참고,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27집 (2008년 3월), 71-82.

어서 차이가 있다.

### 1) '게르' (גר)

히브리어 '게르'는 우리말로 '객', '나그네', '이방인'으로 쓰이고 있다. '게르'의 의미에 대해 박경철은 크뤼제만(F. Crüsemann)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집을 떠나 친척도 소유지도 없는 다른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sup>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도와야 할 사회적 약자 그룹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신 14:28-29; 26:11-12). 미크(T. J. Meek)는 '게르'를 '거주 이방인' 혹은 '개종자'(proselyte)로 보고 있다.<sup>6)</sup> '게르'가 레위인, 고아, 과부와 함께 초막절 행사에 참여함을 볼 때 이 맥락에서 '게르'는 분명 '개종자'일 것이다(신 16:13-14). 또한 스피나(F. A. Spina)는 '게르'를 '이민자'(immigrant)라고 보는데 '게르'는 유목민과 달리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대상 22:2; 대하 2:17; 30:25).<sup>7)</sup> 그러나 반 하우튼(Ch. van Houten)은 그의 저서에서 히브리어 '게르'가 구약 성서 시대별로 다양한 사회적 신분으로 변천되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언약 법전에서 '게르'는 환대와 정의를 필요로 하는 외부인으로 나타나고, 신명기 법전의 제1편집증에서는 취약하고 땅이 없는 계급의 사람들로 나오지만, 제2편집증에서는 외부인이자, 열등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여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관계가 허용된 자로 나온다.<sup>8)</sup> 그러나 제3법전의 '게르'는 도움이 필요한 거주 이방인이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또한 주어진 자다. 즉, 이들은 시민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내부인의 특권도 함께 누리던 자들이었다.<sup>9)</sup> 이처럼 히브리어 '게르'는 구약 성서

5)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38집 (2010년 12월), 116(각주 12번 참고).

6) T. J. Meek,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49 (1930), 172-180. 미크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게르'를 '프로세루토스'(προσηλυτος)로 번역하고 있어 '개종자'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 F. A. Spin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C. L. Meyers and M. O'Connor(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23-324.

8)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8), 204-205. 원제는 Ch.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London: T & T Clark, 1991).

시대별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자격이 주어졌던 존재였다.

## 2) '토샤브' (טוֹשֵׁב)

히브리어 '토샤브'는 '체류자', '거주자', '우거하는 자', '손님'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서에서 명사형으로 13회 사용된다. '토샤브'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출 12:45; 레 25:6, 40, 45; 왕상 17:1), 주로 유사 용어인 '게르' (창 23:4; 레 25:23, 35, 47; 민 35:15; 대상 29:15; 시 39:13),<sup>10)</sup> 혹은 '자르' (레 22:10)와 함께 사용된다. '토샤브'는 일반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을 말한다. 그래서 가나안에 우거하는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기도 하고(창 23:4),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레 25:23, 35; 시 39:12[히, 13절]; 대상 29:15)을 말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고용한 종' (출 12:45; 레 22:10; 25:40)<sup>11)</sup>을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 '게르'가 다양한 특권을 누렸던 것과 달리 제사장의 '토샤브'<sup>12)</sup>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으며(레 22:10), 또한 '토샤브'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출 12:45). '토샤브'의 자녀들은 종(노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지만(레 25:45), '토샤브'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은 면할 수 있었다(민 35:15).

## 3) '자르' (זָר)

히브리어 '자르'<sup>13)</sup>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유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히브리어 '자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구약 성서 저자가 '자르'를 어떤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

9) 윌글, 192.

10) '게르'와 '토샤브'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크뤼제만의 글을 참고하라. F. Crüsemann, "Fremdenliebe und Identitätssicherung: Zum Verständnis der Fremden – Gesetze im Alten Testament", *Wort und Dienst* 19 (1987), 11–24.

11) 세 본문 모두 '토샤브'가 히브리어 '사키르'에 해당하는 '품꾼' (טוֹשֵׁב)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고용된 종'의 신분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2) 레위기 22장 10절에 나오는 '토샤브 코헨' (טוֹשֵׁב כֹּהֵן)을 개역개정에서는 "일반인"으로, 표준새번역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으로, 공동번역에서는 "사제를 찾아온 손님"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스테이스는 이 본문에서 '토샤브'가 제사장과 함께 '단기간 동안 머무는 손님'으로 이해한다. N. H. Snaith, *Leviticus and Numbers* (NCB; London: Oliphants, 1977), 102.

13) 히브리어 '자르'는 우리말 '타인' (strange), '다른' (other), '외인' (stranger), '낯선 자' (stranger), '괴이한 것' (strange thing) 등으로 번역된다.

지, 해당 본문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본문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즉, 해당 본문이 가족을 언급하는지? 혹은 국가를 말하는지? 혹은 제사장 집단인지? 경건한 자들의 집단인지? 그 환경을 살펴야 한다.<sup>14)</sup> 예를 들어, 구약 성서의 ‘자르’는 ‘가족 밖에 있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고(신 25:5), 혹은 두 창녀의 집에 살지 않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왕상 3:18). 욥의 경우 욥은 형제들과 친구들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선 자’가 되었으나(욥 19:15), 앞으로 하나님에게 욥은 낮선 자가 아니라, 친숙한 자로 자리할 것이다(욥 19:27). 또한 ‘자르’는 조상의 전승을 공유하지 못하는 자다. 즉, 테만(Themam) 땅의 지혜가 ‘자르’, 곧 “외인”(stranger)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욥 15:19). 시편에서 ‘자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신실한 자의 적이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유한 자로 나온다(시 53:3-5).<sup>15)</sup> 그러나 ‘자르’가 ‘마음의 감정’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앞서 언급한 의미들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즐거움”과 같은 정신세계의 복잡성을 ‘자르’, 곧 “타인”이 알지 못한다고 잠언 14장 10절은 알려준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지만, ‘타인’(‘자르’)이 너를 칭찬할 때는 괜찮다(잠 27:2). 그러나 ‘자르’가 일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적대적인 것’ 혹은 ‘위협적인 존재’로 쓰이기도 한다(“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תִּירָה]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잠 23:33]). 그러나 이런 경우 ‘자르’는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제3자’를 지칭한다.<sup>16)</sup>

#### 4) ‘노크리’(נֹכְרִי)

히브리어 ‘노크리’ 혹은 ‘네카르’(נֹכַר)는 구약 성서에서 ‘낮선 사람’, ‘이방인’, ‘타국인’으로 번역되는 용어다. ‘노크리’는 일반적으로 ‘비이스라엘인’<sup>17)</sup>을 가리키며(삿 19:12; 왕상 8:41), ‘타국인’(신 17:15)이나, ‘이방 땅’(출 18:3), ‘이방 여인’(왕상 11:1, 8)을 말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제르’와는 달리 ‘노크리’는 이스라

14) L. A. Snijders, art. זָר,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564.

15) A. Causse, *Du groupe ethnique à la communauté religieuse* (Paris: Alcan, 1937), 243.

16) P. Humbert, “Les adjectifs ‘zar’ et ‘nokri’ et la ‘femme étrangère’ des Proverbes biblique”, *Opusculs d’un hébraïsant, Mémoires de l’Université de Neuchâtel* 26 (1958), 260.

17) B. Lang, art. זָר,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460.

엘 내에서 법적 보장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먼제년에 동족에게는 빛을 탕감해 주었으나, ‘노크리’에게는 빛을 독촉할 수 있었고(신 15:3), ‘노크리’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다(신 23:20). 또한 솔로몬 왕은 ‘노크리’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왕상 11:1) 포로 이후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비난받은 바가 있다(느 13:26). 또한 이스라엘은 아웨가 택한 자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통치자(왕)를 삼아야 하며, ‘노크리’를 통치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신 17:15). 잠언에서 ‘노크리’의 여성형 ‘노크리야(נְכִרְיָה)’는 “음녀” 혹은 “창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다.<sup>18)</sup>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노크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쓰인 경우가 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크리’에 대한 구원을 기원했다(왕상 8:41-44; 대하 6:32-33). 또한 이사야 56장 3절과 6절에 나오는 ‘네카르’는 단순히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웨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아웨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웨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를 말한다. 이사야 56장에는 ‘네카르’가 아웨의 종말론적 제의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전이해를 통해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서인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이해를 살피고자 한다. 역대기 역사서는 이방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전통적인 이해대로 역대기는 이방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의 입장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이방인에게 적대감을 갖고, 그들을 배척하는 입장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 각각에 나타난 히브리어 이방인에 대한 용례와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이방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18) 잠언 2장 16절(“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노크리아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5장 20절(“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노크리아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4절(“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 노크리아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19) 박경철, *웃글*, 131-132.

### 3.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먼저 히브리어 ‘게르’는 역대기 역사서 중 역대기에서만 4회 사용되고 있고(대상 22:2; 29:15; 대하 2:17[히, 16절]; 30:25),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언급이 없다. 히브리어 ‘토샤브’ 또한 역대기에서만 1회 사용되며(대상 29:15),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그 쓰임이 없고, 히브리어 ‘자르’는 역대기 역사서에서 용례가 없다. 그러나 히브리어 ‘노크리’(혹은 ‘네카르’)는 역대기 역사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대하 6:32-33; 스 10:2, 10, 11, 14, 17, 18, 44; 느 9:2; 13:26-27, 30).

본문	‘게르’ (גֵּר)	‘토샤브’ (תּוֹשָׁב)	‘자르’ (צָר)	‘노크리’ (נֹכְרִי)/ ‘네카르’ (נֶכָר)
역대기	대상 22:2; 29:15; 대하 2:17[히, 16절]; 30:25	대상 29:15	X	대하 6:32-33
에스라- 느헤미야	X	X	X	스 10:2, 10, 11, 14, 17, 18, 44; 느 9:2; 13:26-27, 30

#### 1) 역대기의 이방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기는 ‘게르’와 ‘토샤브’ 그리고 ‘노크리’를 사용하여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르’는 비유적으로 한번 사용되고(대상 29:15), 나머지 3회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대상 22:2; 대하 2:17; 30:25).<sup>20)</sup> 역대기에서 ‘게르’는 유다 공동체의 종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용어로 인식된다.<sup>21)</sup> 이것은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포로 이후 ‘게르’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포로 이후 ‘게르’는 유다 공동체에 합류한 외국인의 일원이었고, 또한 아웨 종교를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 본래 외국인 신분이었던 ‘게르’로서의 정체

20) 역대상 22장 2절은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으로, 역대하 2장 16절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로, 역대하 30장 25절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로 묘사하고 있다.

21)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7), 346.

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는 이스라엘 “고백 공동체의 내 부인이 된 외부인을 뜻한다.”<sup>22)</sup>

### (1) 이방인에 대한 용법

역대기에서 ‘게르’는 두 그룹으로 나온다. 첫째 그룹은 가나안 원주민의 남은 자이며(대하 2:16), 이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석수로 활동한다(대상 22:2). 둘째 그룹은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에서 온 자들이다(대하 30:25). 히스기야 시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 온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이며, 또 하나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다. 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북왕국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역대기 신학이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그리고 후자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게르’를 말한다.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유의(唯二)한 시기가 다윗-솔로몬과 히스기야 통치 시대이다. 역대기는 다윗-솔로몬 시대 외국인들의 일원을 ‘게르’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초기에는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담당하는 석수였다. 또한 시간이 흘러 히스기야 시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sup>24)</sup>이 유월절 기념행사에 참여하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게르’가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 신분 변화가 있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언급된 ‘게르’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전제가 있다면, 역대하 30장 25절 본문은 이런 전제가 빠져 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유만으로 ‘게르’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써 역대기에는 어떤 외국인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sup>25)</sup> 이방인에 대한 역대기의 관점은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보

22)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트, *윌글*, 193.

23) 역대상 30장 11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과거 북왕국을 형성했던 “아셀과 므넨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알려준다. 역대기는 과거 북왕국 사람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역사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고 역대기는 사마리아 공동체를 구별된 공동체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역대기는 북왕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대상 12:39[히, 40절]; 13:2; 대하 11:4; 30:7)라 부르며, 그들을 ‘온 이스라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꾀한다(참고, 대하 34:21, 33).

24) 다윗-솔로몬 시대 ‘게르’와 히스기야 시대 ‘게르’가 동일 그룹의 후손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게르’라는 단어를 다윗-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집단적인 일관성은 짐작할 수 있다.

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역대기의 족보목록(대상 1-9장)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거침없이 서술되고 있다. 족보목록에 나오는 이방인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때론 ‘게르’ 이어도, 때론 ‘토샤브’, ‘자르’, ‘노크리’ 이어도 상관없다. 역대기는 진정한 이스라엘<sup>26)</sup>을 알리고자 하는 고결한 족보목록에 이러한 이방인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로부터 세 아들을 얻게 되었으며(대상 2:3), 세산에게는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었는데, 이 애굽 종에게 세산은 자신의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했고, 역대기는 애굽 종 야르하의 족보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대상 2:34-41). 므낫세는 아람 여인의 몸에서 아들 아스리엘을 낳았으며, 이 아람 여인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역시 낳았다(대상 7:14-15).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 역대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역대기의 입장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합법성을 부인하고, 이방인 아내의 추방을 요청하는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과격한 견해(스 9-10장; 느 10:31; 13:23-27)와 반대되는 시점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역대기에서 ‘토샤브’는 다윗의 기도 본문 안에서 나타난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גֵּרִים)와 거류민들(גֵּרֵי צִיּוֹן)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대상 29:15)라고 고백한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잠시 ‘손님으로’ 왔다가 가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 본문에는 “이방 나그네(גֵּרִים)”와 “거류민들(גֵּרֵי צִיּוֹן)”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나오는 ‘토샤브’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방 나그네”나 “거류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역대상 29장 15절 본문은 히브리어 ‘게르’와 ‘토샤브’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나그네 인생길을 비유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였다.<sup>28)</sup>

25) 역대기는 넓은 의미에서 개종한 외국인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26) M. Oeming, *Das Wahre Israel: Die genealogische Vorhalle 1 Chronik 1-9* (Stuttgart: Kohlhammer, 1990), 9-36.

27) S. Japhet, *윗글*, 350.

역대기에서 히브리어 ‘노크리’는 2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이 행한 봉헌 기도 가운데 나온다. 이방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고, 사회적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크리’(혹은 ‘네카르’)다.<sup>28)</sup>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이 ‘노크리’에 대해 경멸적인 어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잠 2:16; 5:20; 6:24). 그러나 ‘노크리’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관하던 구약 성서가 놀랍게도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하 6장 32-33절은 열왕기상 8장 41-43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열왕기상 8장 41-43절	역대하 6장 32-33절
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גֵּרִים)이라도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גֵּרִים)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름과 능한 손과 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גֵּרִים)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גֵּרִים)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41-43절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그러나, 뷔르트바인(E. Würthwein)은 이 본문을 기원전 520년 이후 시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베르톨레트(A. Bertholet)의 입장을 지지한다. 즉, 열왕기상 8장 41-43절은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야웨가 자신의 거처(성전)를 다시 얻었다는 확실한 보장이 전제된 본문이다.<sup>30)</sup> 그레이(J. Gray) 또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28) 로디 브라운, 『역대상』(김익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489. 원제는 R. Braun,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 1986). 브라운은 역대상 29장 15절의 표현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혹은 포로 이후 상황을 가리킨다고 본다.

29)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철의 글을 참고하라. 박경철, *뫼글*, 131-132.

30) E. Würthwein, *Die Bücher der Könige 1. Könige 1-16* (ATD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99.

한 ‘노크리’가 아웨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포로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신학적 경향(movement)이었다고 본다.<sup>31)</sup> 이런 열왕기 본문을 역대기는 재인용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역대기 신학과 열왕기상 8장 41-43절의 본문의 의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비록 비이스라엘인 ‘노크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웨께서 들으시고 이 ‘노크리’가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이면서, 역대기 신학이 반영된 본문이라 할 수 있다.

## (2) 소결

이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을 역대기는 말한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혈통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였다. 역대기에서 이방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했다. 첫째, 외국인 남자나 혹은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특정 지파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이스라엘 내에 족보 전승에 포함되는 경우다.<sup>32)</sup> 둘째, 절기에 참여하거나(대하 30:25), 성전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다(대하 6:32-33). 첫 번째 방식은 이방 민족의 일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부족구조 안으로 통합된 경우지만, 두 번째 방식은 주변의 새로운 환경적인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그 구조가 확정된 경우다. 이 둘이 결국 ‘은 이스라엘’의 이상을 전하며, 동시에 한 백성으로서 통합되었던 것이 역대기의 이방인에 대한 이해다.<sup>33)</sup>

## 2)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이방인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히브리어 ‘게르’, ‘토샤브’, ‘자르’의 쓰임이 없고, 오직 ‘노크리’(혹은 ‘네카르’)만 사용되고 있다. ‘노크리’의 여성 복수형인 ‘노크리요트’(נוכריות)가 에스라에서 7회 나오고(스 10:2, 10, 11, 14, 17, 18, 44), 느헤미야에

31) J. Gray, *I & II Kings* (OTL; London: SCM Press, 1980), 225.

32) 소형근,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38집 (2010년 12월), 54-70.

33) 소형근, 『구약 성서 역대기』 (서울: 은성, 2006), 163-164.

서 2회 나오며(느 13:26, 27), ‘네카르’ (נְקָר)는 느헤미야에서만 2회 사용되고 있다(느 9:2; 13:20). 왜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역대기에 나오는 개종한 이방인 ‘게르’의 용례가 없고, ‘비이스라엘인’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법적 보장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크리’ (혹은 ‘네카르’)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 (1) 이방인에 대한 용법

‘노크리’ (혹은 ‘네카르’)가 언급되는 에스라-느헤미야서 본문들은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9장 그리고 13장에 집중되고 있다.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 본문은 이방인과 결혼을 파기하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본문에 해당하며, 느헤미야 9장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 낭독 후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는 기도문이다. 민경진은 에스라가 “벽찬 가슴으로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처음 대한 것은 통혼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나라가 온통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4)</sup> 민경진의 주장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유다 공동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된 자들이 (“온통”) 많았던 것일까? 에스라 10장 18-43절의 혼합 결혼자 명단에는 전체 111명이 나오는데, 그 중 성전 봉사자들(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이 27명이고, 일반인은 84명이다.<sup>35)</sup> 에스라 2장 64절에 따르면 제1차 예루살렘 귀환자가 4만 236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혼합 결혼자가 111명이라면 이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시 페르시아 지역의 글로벌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다사회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경진은 루돌프(W. Rudolph)나 블렌킨소프(J. Blenkinsopp)의 주장처럼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혼합 결혼자들의 명단 중 일부만이 오늘날 정경 안에 들어와 남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sup>36)</sup> 그러나 개혁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합 결혼한 자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스

34) 민경진 외, 『에스라-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81.

35) 70인역에는 성전 봉사자 27명, 일반인 82명(합계 109명)으로, 에스드라 1서에는 성전 봉사자 26명, 일반인 75명(합계 10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 세 명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36) W. Rudolph, *Ezra und Nehemia* (HAT 20; Tübingen: Mohr, 1949), 163-165; J. Blenkinsopp, *Ezra-Nehemiah: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197-198.

라의 신앙 관점에서는 혼합 결혼자들이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다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sup>37)</sup> 따라서 에스라 10장 18-43절의 혼합 결혼자 명단이 본래 명단 보다 축소되었다는 생각은 에스라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혼합결혼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의 파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 본문에 사용된 이방인들은 모두 히브리어 ‘게르’가 아니라, ‘노크리’(혹은 ‘네카르’)라는 점이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노크리’(혹은 ‘네카르’)의 가정에 제한하여 혼인 파기를 요청했던 것일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게르’는 왜 제외된 것일까?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언급된 본문이 있다. 그 본문은 에스라 6장 21절이다.

וַיֹּאבְדוּ בְנֵי־יִשְׂרָאֵל הַשְּׂבוּיִם מִהַגְּלוּתָא וְכָל הַנְּבָדָל מִשְׁבָּעַת נְיֹהָרִין אֲלֵהֶם לְרֹשׁ לַיהוָה אֱלֹהֵי יִשְׂרָאֵ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에스라 6장 20-21절은 유월절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구성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20절에는 제의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을 소개한다. 그리고 21절에는 두 그룹이 언급되는데, 첫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둘째,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찾는 자들”이 나온다. 전자는 바벨론에서 온 예루살렘 귀환자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후자는 야웨 종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한다. 이 후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르’(גֵּר)가 분명하다.<sup>38)</sup> 에스라-

37)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조호진 옮김)」, (WBC 16; 서울: 솔로몬, 2008), 323. 원저는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느헤미야서는 저자의 신학에 따라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종자인 ‘게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38)</sup> 즉,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도 개종자 ‘게르’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마치 역대하 30장 25절에 나오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과 동일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에스라-느헤미야서는 ‘게르’라는 호칭을 회피하고, 이들에 대해 장황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즉, 이들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 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게르’는 포로 이후 유다 사회에서 이미 유대인화 된 외국인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의 가정을 해체시킬 의도가 없었고, 다만 ‘노크리’(혹은 ‘네카르’)로 결합된 가정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에스라의 개혁 대상이 된 ‘노크리’에 대해 장춘식은 데이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 아니었고”, 이방인 여자는 “아내가 아니고 창녀였었다”고 말한다.<sup>40)</sup> 그러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노크리’를 “창녀”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는 없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대상이 된 ‘노크리’(혹은 ‘네카르’)는 느헤미야 10장 30-31절(히, 31-32절)에 나오는 “이 땅 백성”(עַמּוּת הָאָרֶ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자들로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는 자들이었으며,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유다 사람들은 이들과 상종해선 안 되며, 이들에게 딸들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 와서도 안 되며(30절), 이들의 물건을 안식일이 나, 성일(a holy day)에 구입해서도 안 된다(31절).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은 비이스라엘인 ‘노크리’(혹은 ‘네카르’)였으며, 이들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절교해야 하고,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38)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개종자들”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 히브리어 ‘게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 윗글, 211.

39) 에스라-느헤미야는 신명기에 나오는 ‘게르’와 ‘노크리’(혹은 ‘네카르’)에 대한 사상적 이해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 분명하다(참고, 신 5:14; 14:29; 16:11, 14; 26:11 등).

40)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94.

## (2) 소결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전통적인 이해였다고 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이런 입장은 재고(再考)되어야 함을 살피게 되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스 7:10) 위해 유다 지방으로 왔으며,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자다(느 8:1-3). 총독 느헤미야 또한 그의 기도문(느 1:5-10)에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음을 알 수 있고,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개혁의 첫 번째 사건이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축출했다(느 13:1-3). 이처럼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율법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up>41)</sup>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가정을 파격하리만큼 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했던 것은 ‘노크리’(혹은 ‘네카르’) 때문이었다. 이들은 비이스라엘인이면서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곧 ‘게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 4. 결론

역대기의 이방인 이해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기 관점에서는 ‘게르’도, ‘토샤브’도, ‘노크리’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all Israel)의 이상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비해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유다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율법(Torah)을 지키는 이방인에게는 유월절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게르’였다. 그러나

---

41) 김래용은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신명기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혼혈결혼을 한 이방인 축출은 언급그러나, 이방인의 출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참고,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38집 (2010), 49-50.

‘노크리’는 율법을 파기하고, 안식일 법을 어긴 자들로 이들 가정은 해체되어야 마땅했다. 이들은 거룩한 유대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모든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 5.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38집 (2010년 12월), 33-53.
- 로디 브라운, 『역대상』(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489. 원제 Braun, R.,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 1986).
- 민경진 외, 『에스라-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38집 (2010년 12월), 114-136.
- 소형근, 『구약 성서 역대기』(서울: 은성, 2006).
- \_\_\_\_\_, “포로후기 유대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38집 (2010년 12월), 54-70.
- 윌리엄슨, H. G. M., 『에스라-느헤미야』(조호진 옮김), (WBC 16; 서울: 솔로몬, 2008), 323. 원제는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27집 (2008년 3월), 70-88.
-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8). 원제 van Houten, Ch., *The Alien in Israelite Law* (London: T & T Clark, 1991).
- Blenkinsopp, J., *Ezra-Nehemiah: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Causse, A., *Du groupe ethnique à la communauté religieuse* (Paris: Alcan, 1937).

- Crüsemann, F.,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Kaiser, 1992).
- \_\_\_\_\_, “Fremdenliebe und Identitätssicherung: Zum Verständnis der Fremden – Gesetze im Alten Testament”, *Wort und Dienst* 19 (1987), 11–24.
- Gray, J., *I & II Kings* (OTL; London: SCM Press, 1980).
- Humbert, P., “Les adjectifs 'zār' et 'nokri' et la 'femme étrangère' des Proverbes biblique”, *Opuscules d'un hébraïsant, Mémoires de l'Université de Neuchâtel* 26 (1958), 111–118.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7).
- Lang, B., art. נִכְרַ,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454–462.
- Meek, T. J.,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49 (1930), 172–180.
- Oeming, M., *Das Wahre Israel: Die genealogische Vorhalle 1 Chronik 1–9* (Stuttgart: Kohlhammer, 1990).
- Pedersen, J., *Israel: Its Life and Cultur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Rudolph, W., *Esra und Nehemia* (HAT 20; Tübingen: Mohr, 1949).
- Snaith, N. H., *Leviticus and Numbers* (NCB; London: Oliphants, 1977).
- Snijders, L. A., art. זָר/זָרָה,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556–564.
- Spina, F. 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C. L. Meyers and M. O'Connor(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21–335.
- Würthwein, E., *Die Bücher der Könige I. Könige 1–16* (ATD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검색어

이방인

게르

토샤브

노크리

혼합결혼

## Understanding of the Gentiles in the Chronicler's Historical Books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tiles in the Chronicler's Historical Books.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members of the Judaeen community in the postexilic period lived in the global period. Most of them experienced not only the Babylonian period, but also the Persian,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y were generous to gentiles. But on the contrary, they expressed hostility toward the gentiles in order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Judaeen community.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s('ger', 'toshab', 'zar', 'nokri' [or 'nekar' ]), which were mentioned on the Chronicles and Ezra-Nehemiah in relation to the gentiles, are studi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proved that the hebrew words 'ger', 'toshab', and 'nokri' were used in the Chronicles Books, but only 'nokri'(or 'nekar') in Ezra-

Nehemiah. The understanding of the gentiles in the Chronicles remains consistent. All gentiles (‘ger’, ‘toshab’, ‘nokri’), who were living in the area of Judah, could be united with the israelite peopl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the Chronicler. The author of the Chronicles opened the way that all gentiles live in the land of Judah under the ideal of ‘all Israel’. In contrast, the gentile in Ezra–Nehemiah, who observed the Torah, were guaranteed to participate in the Passover festival; they were so called ‘ger’. However, the families of the ‘nokri’ (or ‘nekar’), who did not obey the Torah and the law of Sabbath, had to be dissolved. It was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those who threatened the holy community of Judah. This paper argues that all gentiles in Ezra–Nehemiah were not rejected from the community of Judah, since the gentile ‘ger’ were accepte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nokri’ (or ‘nekar’) were the target of the reform for Ezra and Nehemiah.

## Keywords

Gentile

Ger

Toshab

Nokri

Intermarriage

- 투고일: 2012년 3월 25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http://www.kci.go.kr)